



꽃 (45×65), 한창진 / (주) 한정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

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만으로
 다행이고 넉넉한 마음이다
 스스로 쪼개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여유
 손쉽게 파스텔로 이 것 저 것 그려보는 것 뿐인데
 더 잘 그리고 싶은 연심이 날때는 혼자 웃는다.
 거장 피카소가 그림이란 "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거짓"
 이라고 했다든가 ...
 끝없이 진실에 도전하기 위한 거짓 -- 거창하다